

기록으로 본 고향 소재 노래들

고향은 동요 · 민요 · 가곡 · 대중가요의 단골 소재
국내 가수 중 나훈아가 고향노래 가장 많이 불러

글 | 왕성상(아시아경제신문 본부장)

‘고향’이란 단어는 언제 들어도 가슴 찡하고 애절한 사연으로 다가온다. 유년시절 뛰어 놀던 동심 속의 영원한 그리움이요 평생을 살면서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향수(nostalgia)의 요람이다. 회상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며 동기이기도 하다. 객지사람에게 고향은 언젠가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의 목적지이자 등대불이다. 요즘은 전국이 일일생활권화 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뜸하긴 하나 생명력은 길다. KTX · 비행기 · 고속버스 · 승용차를 타고 어디든 하루 안에 갈 수 있어 공간적 개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퇴색되고 있어서다. 변해버린 고향에서 느끼는 시간적 개념을 접목한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록을 통해 본 고향 소재 노래들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나라 동요 중 고향을 소재로 하거나 제목이 붙은 게 많다. ‘고향’(이원수 작사, 정세문 작곡), ‘고향 그리워’(김중환 작사 · 작곡), ‘고향 길’(김한용, 한세용), ‘고향 길’(김중두, 정문섭), ‘고향 땅’(윤석중, 한용희), ‘고향의 봄’(이원수, 홍난파), ‘그리운 고향’(추석, 김노현), ‘내 고향 산마을’(임교순, 박병두) 등 찾아보면 적잖다.

가곡엔 고향노래들이 더 많다. 교과서에까지 실린 곡들도 있어 초 · 중 · 고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면 몇 곡쯤은 알고 부른다. ‘고향의 봄’, ‘고향 생각’(현제명 작사 · 작곡), ‘고향 그리워’(만향, 이흥열), ‘고향’(박상경, 신귀복), ‘고향의 노래’(김재호, 이수인), ‘가고파’(이은상, 김동진), ‘내 고향’(노천명, 나운영), ‘망향’(박화목, 채동선), ‘향수’(정지용) 등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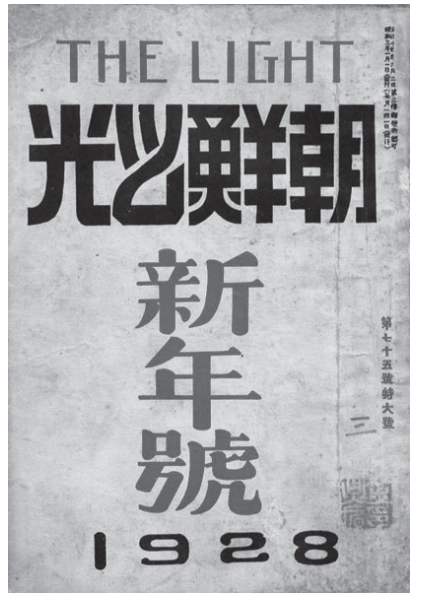
그 가운데 ‘국화꽃 저버린 겨울 뜨락에 / 창 열면 하얗게 못 서리 내리고 ~’로 나가는 ‘고향의 노래’는 가을에 부르면 딱 어울리는 곡이다. 멜로디가 아름다운 이 노래 가사는 고교 국어교사를 지낸 김재호 시인이 지었다. 시인이 쓴 시가 노랫말이 됐으므로 ‘작사’라기보다 ‘작시(作詩)’란 표현이 맞다. ‘석굴암’, ‘별’ 등 주옥 같은 서정가곡과 ‘둥글게 둥글게’, ‘앞으로’ 등 동요를 지은 마산 출신 작곡가 이수인이 곡을 붙였다. 또 ‘나 살던 고향’은 광재구의 시 ‘유곡나루’의 전문이다. 맨 뒷부분은 가수 정태춘이 일부 가사를 보탰다.

정지용 ‘향수’는 장르 다른 음악 섞은 ‘크로스오버’ 효시

민요에도 고향을 소재로 한 곡들이 있다. ‘고향노래’는 진주에 전해오는 유흥의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다. 1980년 8월 3일 류종목, 빈재항 씨가 진양군 미천면 오방리 상촌마을에서 채록했다(198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발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 8-4에 담겨 있음). 제보자는 강재용(남, 59)으로 기록돼 있다. 가사는 한편의 시이다. ‘저 달은 하나라도야 / 조선 천하를 다 밝히네 / 요네 눈은 두 눈 이라도 / 내의 고향을 왜 못 보노 / 보이면 잊을 줄이야 / 나도 변연히 알건마는’으로 나간다. ‘저 달은 하나라도 ~’와 같은 가사는 ‘노랫가락’ 등에서 볼 수 있다. 임이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고향을 볼 수 없다며 슬퍼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제목의 영화 ‘고향노래’(감독 윤봉춘)도 나왔다. 1954년에 만들어진 멜로성격의 계몽영화다. 이선경 · 김신재 · 한은진 · 하연남 · 서월영 · 이금룡 · 김일해 · 윤상희 등이 출연했다.

함경도 시골처녀의 사랑가인 ‘신고산 타령’도 그리운 고향을 노래했다. 신고산은 함경남도 고산군에 있는 산촌마을이다.



● ‘향수’는 〈조선지광(朝鮮之光)〉(65호) 3월호에 발표된 시이다.

외국 민요에도 고향노래들이 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 주’(미국, Carry Me Back to Old Virginy), ‘고향 생각’(스페인, Flee as a Bird), ‘망향’(미국), ‘잘 있거라 내 고향’(독일, Der Letzte Abend), ‘고향의 하늘’(스코틀랜드, Comin’ Thro’ the Rye) 등이 그것이다. 흑인들의 애환을 담은 포스터의 ‘스와니강’, ‘내 고향으로 날 보내 주’ 등 고향을 소재로 한 가곡들도 있다.

국내 크로스오버(장르가 서로 다른 음악의 형식을 섞어 만든 노래) 효시라 할 수 있는 ‘향수’도 고향노래에서 빼놓을 수 없다. 월북시인 정지용의 시(향수)에 가요 작곡가 김희갑 씨가 곡을 붙였다. 김 씨는 조용필이 부른 ‘Q’, ‘그 겨울의 찻집’과 이은하의 ‘봄비’ 등 많은 가요를 지었고 뮤지컬 ‘명성황후’로 더 유명해진 원로 작곡가다.

우수가 깃든 매력적 톤의 이동원이 테너 박인수와 불러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 노래는 때를 가리지 않고 불린다. 다른 몇몇 가수들도 리메이크했다. ‘향수’는 1927년 〈조선지광(朝鮮之光)〉(65호)

3월호에 발표된 시이다. 정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공간·시간 특성을 잘 나타낸 작품이다.

고향은 사랑과 함께 대중가요의 으뜸 밑천이다. 소재로 삼거나 제목으로 붙인 곡들이 수도룩하다. 이런 가요는 시대와 정권에 관계 없이 만들어지고 민초들을 중심으로 즐겨 불린다. 다 같이 느끼는 동질감에다 도시산업화로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다.

‘고향 아줌마’, ‘고향이 좋아’(김상진), ‘고향무정’, ‘고향유정’(오기택), ‘고향열차’, ‘머나먼 고향’, ‘고향 역’, ‘꿈속의 고향’, ‘너와 나의 고향’, ‘가고 싶은 내 고향’, ‘고향 나룻터’, ‘고향의 그 사람’, ‘고향의 어머니’, ‘고향은 멀어도’, ‘대동강 편지’, ‘감나무 곶’, ‘고향을 부른다’, ‘귀향’, ‘고향의 이쁜이’(나훈아), ‘고향의 강’(남상규), ‘고향이 남쪽이었지’(송대관), ‘고향초’(장세정), ‘고향만리’(현인), ‘고향설’(백년설), ‘고향길 부모길’(이성애), ‘꿈에 본 내 고향’(한정무), ‘고향의 그림자’, ‘고향은 내 사랑’(남인수), ‘고향처녀’(진송남), ‘내 고향 충청도’(조영남),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명국환), ‘두메산골’(배호), ‘그리운 고향산천’(윤일로), ‘그리운 고향길’(장세정, 영화 아리랑 주제가), ‘제2의 고향’(윤수일) 등이 있다.

‘강촌에 살고 싶네’, ‘물레방아 도는데’(나훈아), ‘물레방아 도는 내력’, ‘꿈에 본 대동강’, ‘향수’(박재홍), ‘사랑의 옛 고향’, ‘타향살이’, ‘고향은 눈물 이냐’(고복수), ‘흙에 살리라’(홍세민) 등도 고향을 노래했다.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마산 등 전국 시·군 단위별로 고향노래가 있고 지역에창곡들도 많다. 악보나 기록은 없지만 전해져 오는 구전가요까지 합치면 고향 관련 가요는 100여 곡에 이른다.

이들 노래 중 ‘꿈에 본 내 고향’, ‘한 많은 대동강’ 등은 38선을 넘은 실향민들의 애창곡이다. ‘꿈에 본 내 고향’은 음반이 나오기 전에 송달협씨가 무대에서 먼저 불러 애창된 노래다. 부산으

로 피난 간 이북 출신 가수 한정무가 도미도레코드사에서 취입, 음반으로 발표된 망향가의 대표적 곡이다. 지금도 북한에 고향을 둔 이북5도민회 어르신들이나 해외교포들의 만남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반면 북한에선 우리와 같은 고향 소재나 제목을 붙인 노래는 별로 없다. 대부분의 곡들이 전투적이고 이념적이며 정치성을 띄었다. 있어도 딱딱하다.

향수 달래주는 대중가요 대명사 ‘타향살이’

김능인 작사, 손목인 작곡, 고복수 노래의 ‘타향살이’는 고향을 떠나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자주 불렀던 가요다. 고향과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는 대중가요의 대명사다. 노래가 만들어진지 80년이 다돼 가지만 꾸준히 애창되고 있다.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인 다른 대중가요들과 달리 4분의 3박자 왈츠풍이어서 특이하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십 여 년에 청춘만 늘어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엔 애뜻한 사연이 있다. 1933년 어느 날 고복수(1911~1972년)가 중국의 용정에서 공연 중이었다. 무대 뒤로 30대의 한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고향이 부산’이라며 고복수에게 고향집 주소를 적어줬다. 남편을 따라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가난에 지쳐있었다. 이제 고향으로 갈 돈도 없으며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볼 수 없었다.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 자살한 것이다. 고복수가 이 사연을 작사가인 김능인 선생에게 전해줬고 얘기를 들은 김 선생이 음악적 감각으로 만든 노래가 ‘타향살이’다. 노래가 음반으로 처음 발표된 건 1934년 12월. ‘타향살이’의 원제목은 ‘타향’이었다. 그러나 ‘이원애곡’의 뒷면 노래로 실렸다가 시대 상황과 맞아떨어져 뒤늦게 빛을 봤다.

고복수는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서 이 노래로 한 무대에서만 33번의 앙코르를 받아 세계가요사상 유례가 없는 국민가수로 기록되고 있다. 곡 흐름도 좋았지만 노랫말 내용이 나라를 잃고 억압과 설움에 찬 민족의 가슴을 울렸기 때문이다. 일본침략을 피해 고향에 살지 못하고 천리만리 떠나 사는 겨레의 망향신세를 노래해 크게 히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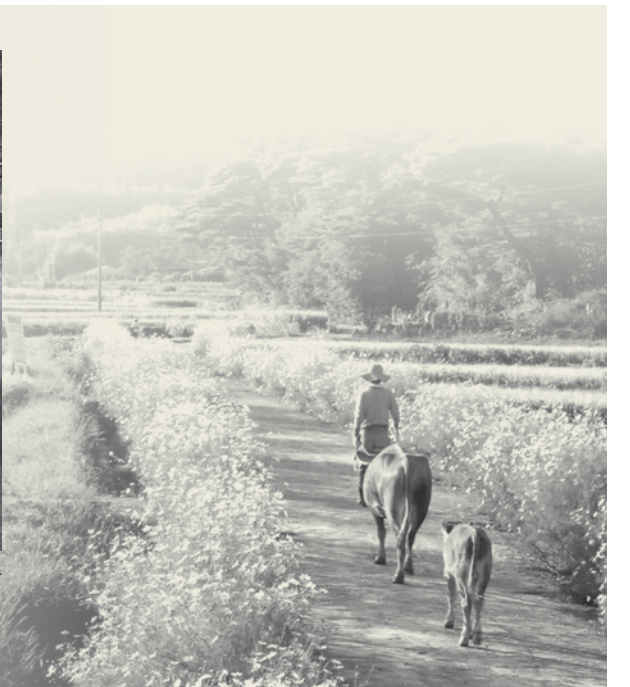
‘타향살이’는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일제강점기 때 타향살이 설움을 받던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설움을 달랬다. 만주 하얼빈공연 때 객석은 울음바다가 됐고, 이 노래를 10번이나 불러야했다. 고복수는 울산군 하상면 서리(울산시 중구 서동) 22번지에서 태어났다. ‘타향살이’, ‘황성옛터’ 등으로 망향의 한을 달래면서 ‘알뜰한 당신’, ‘울



● ‘타향살이’를 노래한 고복수(1911~1972년)



● 고복수 노래비(울산시 중구 북정동 동헌 오른쪽 입구에 위치. 1991년 10월 17일 건립)



산 큰 애기’ 등을 부른 부인 황금심(1934~2001년)과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쳤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며 감옥살이를 했을 만큼 올곧은 가수다. 그는 두 아들을 뒀다. 큰 아들(고영준)은 대를 이어 가수로 뛰고 있다.

‘고향초’도 고향노래의 간판 격으로 유명한 곡이다. 김다인(본명 조영출) 작사, 박시춘 작곡의 ‘고향초’가 처음 불린 건 1947년이지만 6·25전쟁이 터지면서 피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지금도 나이 든 해외교포들은 모국을 그리며 이 노래를 자주 부른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 음률감각인 3박자 구성으로 만들어져 노래를 부르다보면 쓸쓸하고 애절한 삶의 비애감이 묻어난다. 특히 작사가의 노랫말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농촌처녀의 무작정 상경’이란 사회문제를 애뜻한 분위기로 담아냈다. 농촌의 주인이 농민임에도 도회지로 떠나 흙냄새를 잊고 살아가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 ‘고향초’는 수원 출신 여가수 송민도(예명 송민숙, 백진주)의 데뷔곡이자 대표곡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시대 흐름과 맞아떨어져 히트했다. 이어 선배 가수인 장세정(1921년~2003년 2월 16일, LA에서 고혈압으로 별세)이 1952년 피난시절 오리엔트레코드에서 다시 취입해 더 널리 알려졌다. 그러다 1973년 통기타가수로 데뷔한 홍민이 다시 불러 또 한 번 히트했다.

이 노래는 맨 처음 KBS 1기 전속가수 송민도가 방송국에서 부르자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오케레코드사가 1948년 음반으로 본격 선보였다. 저음

의 송민도는 이 노래를 부를 때 기교를 부리지 않은 고운 소리를 내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향초’가 1944년 라미라가극단에서 공연한 악극 〈오동나무〉 무대에서 처음 불렸다는 일설도 있다.

객지에서 고향 그리움 노래한 ‘머나먼 고향’

1971년 발표된 박정웅 작사·작곡, 나훈아 노래의 ‘머나먼 고향’은 4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인기는 여전하다. 노래가 만들어진 건 1968년. 고향 밀양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작사·작곡가 박정웅 씨가 25살 때 악상이 떠올라 노랫말을 만들고 곡을 붙였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며 무작정 서울로 가 객지에서 처음 맞는 추석명절은 쓸쓸했다. 친구의 하숙방에서 묵은 그는 향수를 달래려고 기타를 잡았다. 밀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타 줄을 통기기 시작했다. 줄을 타고 흘러나온 멜로디와 노랫말은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가사가 돼 5선지에 담겼다. 이어 취입에 들어갔고 음반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나훈아의 대표곡 ‘머나먼 고향’이다.



● 1969년 시골버스 정류장 풍경(1969년, 사진 양해광 제공)

머나먼 남쪽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천리 타향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잔 술에 설움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노래가 방송을 타면서 전국에 고향신드롬이 일어났다. 노래 제목인 ‘머나먼 고향’은 좁고 배고픈 서울생활의 처지를 사실적으로 잘 나타냈다. 1970년대 근대화정책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에 맞춰 많은 시골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그 무렵 도시이방인들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고향에 가지 못한 민초들을 노래로 달래줘 인기였다.

이 노래가 히트하자 고향을 소재로 한 가요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국내 가수 중 고향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고 히트한 사람은 나훈아다. 20곡 이상 고향노래를 불렀다. 덕분에 음반회사들은 고향시리즈 곡들로 재미를 봤다. 그 무렵 나온 상당수 고향노래들이 구슬프거나 여린 분위기를 줬다. 그러나 ‘머나먼 고향’은 그렇지 않았다. 청송맞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이방인의 향수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며 고향시리즈 곡을 대표했다.

이 노래를 맨 처음 취입한 가수는 나훈아가 아니다. 곡이 만들어지자 유지성(태평레코드사 사

장)이 먼저 불렀으나 반응이 별로였다. 그래서 1971년 나훈아가 리메이크해 음반을 새로 냈다. 울고 비틀고 꺾는 나훈아의 노래스타일을 벗어나 경쾌하고 간결한 창법으로 새로운 맛을 줬다. ‘깨끗하게 불러라, 울지 말고 불러라’는 작곡가의 주문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유한 그의 창법에서 감정을 최대한 자제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곡의 완성도가 뛰어난데다 깨끗하면서도 호소하는 듯 한 나훈아 목소리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노래 악보가 만들어졌을 때 ‘내 고향 충청도’를 부른 조영남이 취입하길 원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후일담이 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향 찾아서~’로 나가는 배호의 ‘두메산골’도 고향 사랑과 향수가 짙은 가요다. 드림을 치다 가수가 된 배호는 이 노래를 불러 히트했다. 1967년 반야월 작사, 김광빈(배호 외삼촌) 작곡의 이 노래는 저음가수 배호와 멋진 앙상블을 이뤄냈다는 게 가요전문가들의 평이다.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공원’ 등 수 많은 히트곡들을 쏟아낸 배호는 29살 때인 1971년 가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북 익산 황등역을 무대로 한 ‘고향역’

나훈아가 부른 ‘고향역’(4분의 4박자, 고고리듬)은 언제 들어도 정겹고 마음이 푸근해진다. 가을철 TV음악프로그램의 단골곡이다. 노래방, 술자리에서도 인기다. 1960~70년대 산업화와 고속성장기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망향노래는 그 무렵 대중음악의 주 메뉴였다. ‘고향역’은 그 중 대표곡이다. 노래를 만든 사람은 임종수(70) 선생. 노랫말을 썼고 곡까지 붙였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 이뿐이 곱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 눈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고향역’은 1971년 신인 작곡가 임종수 작사·작곡, 나훈아 노래의 ‘차창에 어린 모습’에서 비롯됐다. ‘고향역’의 원곡인 셈이다. 그러나 ‘차창에 어린 모습’은 오래 못 갔다. 발표되자마자 금지곡이 돼버린 것이다. 군가에 익숙한 군사정권의 이해부족에서였다. 새마을운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예술성 높은 곡들이 탄압받는 과정에서 시대의 뒤안길로 묻혔다. 야심작이면서도 작곡가로서 일생을 걸만한 수작을 ‘방송금지곡’이란 사형선고를 받고 비판에 젖은 임씨에게 희망의 빛이 보였다. 나훈아가 ‘차창에 어린 모습’이 너무 좋은 곡인데 아쉽다며 노랫말과 리듬을 바꾸자고 제의해온 것이다. 임씨는 자고나면 히트곡이 쏟아지는 가요계 스타 나훈아 애기에 감격,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학창시절 기차통학 때를 생각하며 작업을 다시 했다.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던 시골 역을 떠올리면서 노랫말을 다시 쓰고 템포가 빠른 고고리듬으로 바꿨다. 그렇게 해서



● 호남선 황등역 이정표(CET0094090)



● 피난민들의 아픔이 녹아있는 휴전선 부근 파괴된 열차(CET0048152)

1972년 나훈아를 통해 발표돼 영원불멸의 히트곡 ‘고향역’(오아시스레코드사)이 탄생했다.

‘차창에 어린 모습’이 ‘고향역’으로 바뀌는 과정엔 기차역이 등장한다. 전북 익산의 황등역이 그 무대다. 역이 노래소재로 등장한 사연은 1950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등역은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호남선 정거장으로 임 씨가 고교학창시절 매일 지나쳤던 곳이다. 전북 순창에서 모두들 배고픈 시절 가난한 시골농가의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고향에서 나왔지만 고등학교는 형이 살던 익산(옛 이리시) 삼기면에서 다녔다. 삼기에서 황등역까지 나와 기차를 타고 익산 남성고를 통학한 것이다. 농촌시골 역들이 다 그랬지만 길가에 꽃이 심어졌고 광장에 화단이 있어 기차손님들을 반겼다. 황등역도 그랬다. 감수성이 예민한 고교생 임종수는 코스모스 꽃길을 만끽하며 기차통학을 했다. 역 풍경과 코스모스 꽃길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생히 남았다. 어른이 되면서 고향집과 더불어 철길 변 코스모스가 가슴 한 곳에 자리 잡았고 그 이미지는 음악으로 이어졌다. 신인 가수 나훈아에게 ‘고향역’을 만들어줄 때 그때의 정서들이 스며들었다. 추억의 황등역은 그렇게 해서 ‘고향역’ 노래로 새로 태어났다. 작곡가 생활 처음 5년여 무명으로 보낸 임종수는 ‘고향역’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유명 작곡가 대열에 올랐다.

‘고향역’ 무대가 된 황등역은 간이역으로 움츠러들었다. 2005년 8월 1일 역무원이 철수해 문을 닫아버려 초라한 역사만이 옛 영광을 말해주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일로가 부른 ‘그리운 고향산천’도 사연이 있는 고향 관련 옛 가요다. 1963년 발표된 안다성의 노래 ‘못 잊을 대전의 밤’ 음

반에 담긴 이 노래는 이삼향이 작사하고 김현이 작곡했다. 6·25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피란 올 때의 상황이 노랫말이 됐다. 뒤에서 인민군들이 무차별 총을 쏘자 아내와 자식은 흩어져 소식을 알 길이 없어 이 씨가 그 때를 떠올리며 노랫말을 쓴 것이다.

함박눈이 쏟아지고 강바람이 뺨을 치던
다리 없는 대동강을 목숨 걸고 념을 적에
울며불며 따라오던 부모처자 다 버리고
살 길 찾아 천리타향 나 혼자만 왜 왔으랴
아~ 언제나 가고 싶은 고향산천

서울 청계천 8가에서 중고음반가게를 운영했던 이 씨는 남으로 피난 와 힘든 삶을 보냈다. 그래서 그런지 가사 내용이 너무나도 애절하다. **IN**

● 필자소개

마산중·고,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대학원을 나와 1979년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몸담아 오고 있다. 특히 ‘남인수 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아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에 등록(865호). ‘이별 없는 마산항’ 등을 취입했다. ‘기자 가수’로 가끔 무대에 서면서 글을 쓰고 있다.